

지역 매아리

정읍시, 여름방학 맞이 청소년프로그램 '다채'

정읍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먼저 방학이 시작되는 7월 28일과 29일(1박 2일)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친구들과 함께 여행하면서 심성을 수련할 수 있는 멋진 우리 심성 수련캠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어 8월 7일과 8일에는 신청동에 위치한 첨단과학산업단지 연구원들과 함께 과학자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미래과학자 프로그램(초등학교 5학년~중학생 대상)이 운영된다.

또 8월 11일과 12일에는 정읍상문의 해를 맞아 7월 28일의 청소년이 타지에서 정읍을 홍보하며 효연지기를 기르는 '동지 탈출 부산 자유여행'이 예정돼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이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또 행복하고 소중한 추억을 담아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063-531-3000)로 신청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정읍사공원에 '유아숲 체험원' 조성

정읍시가 정읍사공원 야생사슴숲 일대에 유아숲 체험원을 조성한다.

유아숲 체험원은 아이들이 숲 활동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고 신체적·정서적 성장을 돕기 위한 자연 친화적인 숲 놀이터다.

체험원은 인위적인 놀이 공간에서 벗어나 숲에서 자연과 교감해 유아의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 함양에 기여하는 산림 체험·교육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총사업비 4억원(국비 2억, 시비 2억)을 투입해 6월 착공, 연내 체험원 등록을 마칠 계획이다.

집중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균형 놀이대와 기존 지형을 활용한 사면 놀이대, 숲속 로프놀이대 등 아이들의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체험공간이 조성된다.

시는 지역 내 보육 기관 어린이들과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매년 4월부터 연 말까지 다양한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체험원에 유아숲 전문 지도사 2명을 배치해 도심에서 즐기기 못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아이들의 호기심과 창의력 향상을 돕는다.

정읍시 관계자는 "유아숲 체험원을 통해 아이들에게 보다 다양한 숲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아이들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도울 수 있도록 자연 친화적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예비 귀농인들에게 안성맞춤!

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직거래 마케팅·토지법률 안내 등 다양한 교육 호응

지난 4일 선운산이 자아내는 호젓한 풍경이 끝없이 펼쳐지는 고창군 부안면. 그곳에 자리한 '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찾았다. 무더운 여름철 비닐하우스 안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토마토 결손 제거에 집중하고 있는 오규호씨를 만났다.

서울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은퇴한 오규호(59)씨는 환한 일굴로 맞이했다. 오규호씨를 비롯한 35명, 27세대의 예비 귀농인들은 지난 3월 제2기 체류형 지원센터에 교육생으로 입교했다.

오씨는 "누구나 살고 싶은 그림 같은 경관, 쾌적한 시설, 부담 없는 이용료, 내실 있는 기술교육, 공동체 생활, 모든 게 좋다"면서 "장기 기술교육은 물론 지역에 적응할 기회도 제공해, 농촌 생활을 좀처럼 경험하기 힘들었던 대도시 출신 예비 귀농인들에게 안성맞춤"이라고 말했다.

오씨의 안내를 받아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2340㎡에 달하는 드넓은 텃밭이다. 텃밭에서는 교육생들이 실습수업으로 심은 작물이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다.

하우스 시설과 열심히 날아오르며 꿀을 모으고 있는 꿀벌통도 50여개가 있으며 교육관 등도 마련돼 있다.

오씨는 "센터에서는 교육과 함께 영농 도구와 퇴비 등도 전부 지원한다"면서 "공동온실하우스에는 백향과, 멜론, 방울토마토가 자라고, 텃밭에는 고추, 수박, 옥수수, 방울토마토, 여주, 고구마 등 여러 작물을 정성껏 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텃밭과 함께 10개월간 체류할 수 있는 숙소를 운영한다. 공동주택 1동(20세대), 단독주택 10동(10세대)이다. 세대별로 입주하는 주택과 체력단련실, 휴게실 등 부대시설이 갖춰져 있다.

특히 센터의 한달 이용료가 주거 형태에 따라 공동주택 21만 5000원, 단독주택 24만원으로 나뉜다. 쾌적한 시설에 교육비까지 포함되는 것을 고려하면 저렴한 수준이다.

이달부터 교육생들은 작물 재배 관리 기술을 배우고 있다. 세부내용으로 온실하우스 온도 관리와 방울토마토 잿손과 결가지 제거작업, 멜론 유인줄 설치와 유인작업, 방울토마토 양액관리



지난 4일 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서 오규호씨가 비닐하우스 안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토마토 결손 제거에 집중하고 있다.

및 수정법 사용방법 등을 지도하고 직접 운영 할 수 있도록 유도해 교육효과와 입교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이와 함께 SNS를 활용한 직거래 마케팅 교육, 스마트팜 교육과 귀농인에게 유용한 토지 법률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고창군농업기술센터 체류형창업팀 고현규 팀장은 "예비 귀농인들이 교육 수료 후 영농에 실질적인 작물 재배기술부터 농업·창업 경영까지 아우른 폭넓은 주제로 교육을 구성했다"면서 "고창군 귀농 정착률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한 알찬 교육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사업 순항

고창군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사업'이 순항하고 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사업은 저소득 장애인들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유형에 맞는 주거편의 시설 확충과 주택개조를 지원한다. 해당 380만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 부담한다.

지원 대상자는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2019년 4인 기준 461만3000원) 이하 장애인 가구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 3월 우선순위에 따라 17가구를 선정해 사업에 착수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는 장애인의 종류·등급과 주택 상황 등을 고려해 ▲주택 내 화장실 개조 및 내

부 화장실 설치 ▲주택 출입구 경사로 보수·설치 ▲보조 손잡이 설치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위한 시설 설치와 개보수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 대상자는 "그동안 주택 내·외부 출입 및 이동 할 때마다 문턱이 높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출입구 경사로와 보조손잡이 등이 설치돼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 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저소득 장애인 생활불편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거복지 지원 확대에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군장병과 함께하는 군부대 이동복지상담실 운영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최근 부안대대를 찾아 100여명의 장병들을 대상으로 '군장병과 함께하는 군부대 이동복지상담실'을 운영했다.

이동복지상담실은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 및 복지서비스의 누락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동복지상담차량을 통해 부안군 곳곳을 운행하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천하고자 부안군에서 활발히 실행하고 있는 복지서비스이다.

이동복지상담 차량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이뤄진 이번 상담은 1대 1 상담을 통한 심층상담과 비밀보장 등 부대 내에서 이뤄지기 어려운 개별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부안군 사회복지와 통합조사팀에서는 각종 제도 안내·홍보, 복지서

비스 신청을 추진했으며 희망나눔에서는 사례관리사와 동행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취업·진로 등을 상담해 큰 호응을 얻었다.

부안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동복지상담실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위기가구를 빠짐없이 발굴해 체계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맞춤형 복지에 대한 주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복지상담실은 연간 일정별 계획에 따라 부안군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진행되며 1년에 5~6회 정도는 군부대, 경로당 등 다중집합장소를 찾아 홍보 팸플릿을 나눠주고 알기 쉽게 다양한 복지제도를 설명하고 현장에서 접수도 받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대폭 설치

부안군은 생활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우려지역에 대한 신속한 위치 확인을 위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확대 설치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 부안군은 올 상반기에만 1억 3800만원을 들여 도로명판 1406개소, 국가지점번호판 43개소, 기초번호판 90개소 등 총 1539개소의 관련 시설물을 설치한 바 있다.

부안군은 우선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나 골목길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함께 표기한 도로명판을 설치해 누구나 목적지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

또 취약지역인 위도 등산로에는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해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위치신고 및 찾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미 설치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실시해 망실·훼손되거나 누락된 시설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내시설물이 부족한 지역에는 지속적으로 관련시설을 확대 설치해 생활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며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에 대비해서도 개

최지역에 맞게 도로명주소 관공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여름철 자연재해 예방 위한 선제적 대응 나선다

농업재해 대책상황실 설치·운영

정읍시는 여름철 폭염 특보와 태풍, 집중호우 등 농업재해 최소화를 위해 여름철 재해 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여름은 평년에 비해 기온이 높아 폭염을 동반한 무더위가 지속된다는 기상청의 발표에 따라 상황실 운영을 통해 태풍과 폭염 등으로 인한 농업재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상황실은 3개반 20명으로 구성된다. 산하 유관기관과의 연계로 상황근무 및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기상특보(주의보, 경보) 발표 시 2인 1개조를 운영, 문자발송으로 기상정보를 신속히 제공한다.

자연재해 피해 상황이나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비상체제로 전환해 신속한 현장점검과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등 최대한 빠르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물과

가축시설 관리요령을 사전 배포하여 농업재해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집중호우와 폭염 등 각종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여름철에 농작물과 시설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업피해 발생 시에는 신속한 상황파악과 응급복구를 위해 해당 읍면동이나 농업재해 대책상황실(☎ 539-6223)로 신고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several bottles of wine, gift sets, and promotional text in Korean. The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There are also images of a cartoon bear mascot and various gift set options with prices.